

# 군산사랑 지류상품권 완판

### 올 발행액 5000억원 중 3820억원 판매 완료... 모바일 비율 더욱 확대기로

군산경제 회생의 기틀이 된 군산사랑상품권의 2020년 발행액 5,000억원(지류 3,820억원, 모바일 1,180억원) 중 지류상품권 3,820억원 전액이 판매 완료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910억원, 2019년 4,000억원, 올해 5,000억원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누적금액만 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달에는 서울 국회의사랑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

례 발표대회에 초청돼 전국 대표로 무대에 올라 성공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임준 시장은 한 두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시기 단기간에 지역상품권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상품권 발행 사업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이 어떤 역할과 성과를 냈는지 직접 설명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의 이용편리를 위해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한 카드형상품권을 출시했고 현재는 NH농협카드만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점차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은행 전체로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오는 2021년에도 5,000억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을 10% 할인 발행해 유통할 계획이며,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 발행비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지류 3,000억원, 모바일 2,000억원)

이중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으로 지류 상품권이 전액 소진되어 12월에는 은행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직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남아있으니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이용해서 길 부탁드린다"며 "군산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을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이희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미10kg 20포(60만원 상당)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고 현물을 기탁했다.

## 수송동, 불우이웃돕기 성금 줄이어

### 주민자치위·한라비발디2단지 입주자대표회 등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춥고 어려운 올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수송동의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르며 함께 나눔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재영)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료가 될 수 있도록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로당방문, 소외계층 후원금 전달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문재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치위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라비발디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이희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미10kg 20포(60만원 상당)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고 현물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수송동장은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동절기 전통시장 대형화재 대응방안 모색

### 익산소방서, 금마시장 초기 대응능력 강화 소방컨설팅 등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일 전통시장인 금마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소방안전컨설팅 및 화재취약요소 점검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바빠 움직였다.

전통시장 및 대형 상업가는 건물 노후화와 건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화재 시 연소확대의 위험성이 높아 예방과 자율적인 관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33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전북에서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로 화재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금마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내 안전관리 당부와 예로시한 청취 등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장내를 순시하며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내부 화재 위험요소 확인 및 사전 제거 ▲시장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소방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시장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장내 출동로

확보여부도 상세히 살폈다. 특히, 작년에 설치 완료된 보이는소화기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며 "민·관이 하나 된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올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인프라 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주요 전통시장 중앙·매일·중앙·구시장에 보이는 소화기 252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보건소 "아토피 예방관리 실천이 중요"

### 월1회 보습제 지원 등

군산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일부 운영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아토피질환은 추운 계절에 피부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아토피 예방수칙(1·3·3법칙)일 1회 목욕, 목욕후 3분 이내 하루 3번이상 보습제 바르

기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토피 진단(질병코드 L20)을 받은 만1세이상 만8세이하 아토피질환자에게 월1회(로션 또는 비누 등)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 피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료기

관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4인 소득기준: 474만9,000원)가정에 연간 1인당 50만원(최대5년간)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진료계(460-32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원광대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 3' 진행

### 내년 1월 3일까지 인문학 소통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찾아가는 NEAD 라디오 시즌 3 프로그램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주제인 NEAD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의 공동체 구축'을 의미하며, 인문강화 찾아가는 NEAD'는 아젠다 연구를 통한 성과를 확산하고,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유형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인문학 이야기를 동북아시아다인문연구소 연구진들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북도민들의 청취율이 높은 전주MBC FM모닝쇼 김차동입니다를 통해 매주 일요일마다 송출되는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에게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

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HK+지역인문학센터와 전주MBC는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인문강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즌 3에서는 천춘화 교수의 '동북아를 횡단한 혁명가 문인 김학철'을 시작으로 정규식 교수의 '비·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의 미래', 권의석 교수의 '개화기 한국을 찾은 영국인들', 박해남 교수의 '한국 청년의 꿈, 일본 청년의 꿈', 한승훈 교수의 '비록의 배꼽에서 나온 예언서, 김현주 교수의 '탕치차오와 그의 시대 영웅'이 송출된다.

HK+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많은 관심 속에서 찾아가는 NEAD 라디오가 시즌 3를 맞게 됐다"며 "라디오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세금 납부 홍보

군산시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압박 있고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세외수입을 잊지 않고 납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와 압박 있고 밀린 지방세입금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요약해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4일에 일차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25일에는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전체에 안내문을 배포, 각 동 출입문에 내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초에는 2020년 시작에 맞춰 납세자에게 모든 납부 방법을 안내해 성실납세의 체납 방지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추진한 바도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58명, 복지형 114명, 특화형 32명 등 204명이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있거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연속으로 참여한 시민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분야는 58명(전일제 44명, 시간제 14명)을 선발하며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 복지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참여 희망 시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경로장애인과(859-5839)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